

# 동부권발전사업 추진 박차

## 순창군, 2018년도 식품·관광분야 4개사업 67억원 규모 확정

순창군이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미래먹거리와 토탈관광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위원회를 통해 2018년 식품, 관광분야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확정된 바 있다.

순창군의 2018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총 4건 67억원 규모로 식품분야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조성 7억원, 관광분야는 수(Water) 체험센터 조성 22억원, 강천산 야간 명소화 26억원, 힐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다.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순창의 건강장수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소재 개발 및 상품화, 체험교육 활성화, 기업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순창은 2011년부터 14년까지 추진했던 장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바 있어 건강장수와 장류를 연계한 시너지를 통해 지역발전의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2016년에 시작



순창군이 동부권발전사업을 추진해 미래먹거리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수(Water) 체험센터 건립이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중에 착공예정이다. 체험센터 건립과 더불어 인근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순창에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은 총 20개 구간 2.8km 산책로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인공지능 활용 홀로그램 레이저 쇼, 상호반응·관람형 미디어아트 등의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가

구축된다. 또한 건강장수사업소 일원에 추진 중인 설(SI)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은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급근에 힐링숙박시설 10동과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권발전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관광과 식품분야의 사업에 직접 중추자하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명인·명창을 꿈꾼다면 여기로 오라’

## 춘향국악대전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

대한민국 명인 명창의 등용문인 제44회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열린다.

제87회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춘향국악대전은 올해로 44회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춘향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위원회, CJ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주관하는 제44회 춘향국악대전은 사랑의 광장 무대와 관현부원 특설무대,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예선과 본선이 각각 치러지게 된다.

경연 종목은 판소리, 민요, 무용, 관악, 현악·병창, 신인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학교생부터 일반인까지 그동안 인고의 노력을 이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에 등단하기 위하여



제44회 춘향국악대전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열린다.

대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기량을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2,000만원을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에는 전북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남원시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일반부 부문에는 종합대상으로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 종합대상 이외의 종목은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씩이 각각 돌아간다.

박형식 대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국악인들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인 국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 복지 슬로건 홍보 부스 운영

지역 소식통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춘향제기간(5. 3. ~ 5. 7)에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지원제도, 이웃돕기에 대한 홍보와 방문객 미소를 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추진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 긴급지원제도, 이웃돕기에 대한 홍보와 방문객 미소를 담은 즉석사진 행복남겨주기, 복지관련 동영상으로 복지 알음알음 행사,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희망복지지원단은 다채로운 이

벤트를 통해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하고, 더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남원시의 갖가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책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리플릿 등을 배부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교육·주거·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 광한루원서 춘향·이도령 조형물 제막식

남원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앞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1일 제87회 춘향제를 앞두고 광한루원 북문에서 춘향과 이도령상(像) 제막식을 가졌다. 조형물은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설매는 장면을 세밀하게 담아 내 광한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된다.

예천길 조형물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좌대 80cm에 높이 3m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 조각가인 이용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이 제작을 맡았다.

광한루원은 춘향과 이도령이 신분을 초월한 승고한 사랑을 속삭인 곳으로 연간 143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남원시 대표관광지이다. 특히, 광한루원은 평양의 부북루, 진

주 축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광한루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남원시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 설치로 광한루원과 구도심을 연결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제87회 춘향제는 전통공연과 예술행사에 역점을 두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합의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며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이 사랑의 도시 남원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 제막식에는 이환주 시장과 서울대학교 이용덕·김병중 교수, 시의원, 시민 등 50여명 참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황송주 순창군수 “군정방향, 4차 산업혁명에 맞게”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산, 문화관광,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에서 우리군의 대응 전략 찾기에 적극 노력해 달라” 황송주 군수가 1일 3층 회의실에서 진행 된 5월 월례조례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황 군수는 “4차산업 혁명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먼저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각자 위치에서 이를 활용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1차 적으로 공직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4일까지 농축산수업, 문화관광, 기후변화, 환경·에너지, 보건복지, 건설교통, 경제·산업, 고용·일자리, 안전, 주민생활,

행정 등 총 10개 분야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황군수는 4차산업 혁명의 예도 “5월은 해당 중앙부처가 예산안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시기이므로 우리군 핵심 사업들이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55회 순창군민의 날”과 “군민체육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읍면과 관현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영농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지진피해 최소화 나서

순창군이 지진발생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시설 13개소 및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지진피해 발생 최소화해 나갔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로 현재까지 612회의 여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취해진 조치다.

군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지방세 감면제도,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홍보물을 분기별로 제작·배포 하기로 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운봉 바래봉 철쭉제 기념 행사

제23회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원형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운봉을 애향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기념행사는 터울림 공연과 지리산 철쭉제, 기념식을 시작으로 초창기수 공연과 대자당, 학생사랑대회, 자연을 닮은 종이인형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철쭉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 농·특산물 전시관매장, 지리산 야생식물 사진전, 떡거리 장터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기 운봉애향회장은 “전국 제일의 철쭉명소인 지리산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경찰, 모범청소년 격려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1일, 모범청소년에게 경찰서장 상장을 수여했다.

이날 순창 제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정우 학생은 성실한 자세로 학업회 선도 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과 학교생활 선도에 앞장서는 등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오늘의 주인공이 되었다.

표창을 받은 서정우 학생은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외된 친구들에게 또래 상담자 역할을 하고 후배들에게는 멘토·멘티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영역의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 의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Sers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